

사 도 신 경 ----- 다 갈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발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가 ----- 559장 ----- 다 갈 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가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 도 ----- 가 족 대 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
을 부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내던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이 시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보다 세상의 일에 마음을 빼앗길 때
가 많았습니다. 말씀 앞에 머물기보다 자기 생각과 판단을 앞세웠던 모습을 고백합니
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
서.

주님, 이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말과 마
음 속에 온유함을 허락하시고, 용서와 이해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
디에 있든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
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성 경 봉 독 ----- 데살로니가후서 2:13-15 ----- 인 도 자

설 교 -----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 인 도 자

주 기 도 문 ----- 다 갈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와 장면 속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마음이 지치고, 신앙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비난의 소리, 우려의 소리, 끝없는 걱정의 소리를 보고 들으며 살아가다 보면, 신앙을 지켜가는 일이 점점 버겁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우리와 구체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혼란스러운 소리들 속에서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1. 바울의 대안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굳게 지키라”(15절). 바울이 말하는 ‘전통’은 단순한 관습이나 인간적인 유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곧 구원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에게서 듣고 배운 그 복음을 그대로 붙잡고, 더욱 힘써 지키며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2. 예수님의 본보기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 천국 백성의 삶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이 따를 수 있으며, 그 길은 좁고 험하다고 하셨습니다(마 5:10-12, 7:13-14).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친히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완수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기 때문입니다.

3. 오늘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르침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가족들 역시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바울의 권면처럼 사도적 가르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길이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일수록, 진리의 복음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함으로써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풍파와 헛된 사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를 분별하며 믿음을 지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이 설명절에, 우리 모두가 가르침을 받은 그 복음을 다시 붙들고, 흔들림 없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 설명절 가정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일영도교회
The First Yeongdo Presbyterian Church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